



입담 좋은 재즈드러머 남공연



버클리 음대 전액 장학생 출신의 홍일점 윤지희

# 재즈와 국악의 어울림

### 국립국악원, 내달 4일 '금요공감' 공연

국악의 즉흥 합주곡 양식인 시나위에 드립 연주가 더해져 색다른 장단을 전한다.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이 3월4일 오후 8시 풍류사랑방 '금요공감' 무대에서 재즈드러머 남공연이 이끄는 K비트 앙상블의 '즉(卽)' 공연을 선보인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아쟁 연주자 윤서경과 거문고 연주자 이재하, 재즈 피아니스트 윤지희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즉흥을 위한 즉흥에 의한, 즉흥 자체"의 무대로 꾸며진다. 모든 연주자는 이번 연주의 주제를 공유하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담 좋은 남공연은 사회도 본다. 각각의 음악 주제에 대해 관객과 함께 이야기한다.

K비트앙상블이 국립국악원에서 국악인과 협업 무대를 펼친 것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3월 '금요공감' 무대에서 타악 연주자 민영치와 함께 드립과 장구의 한판 대결을 벌이고 현대 무용을 접목시킨 '춤의 소리, 장단의 춤'을 선보였다.

8월에는 토크콘서트 '토요정담'에 출연, 이번 공연에 함께 무대에 오르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이재하와 윤서경과 함께 즉흥 시나위 연주 무대를 펼친 바 있다. 작년 7월에는 국립극장으로 무대를 넓혀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놀이'의 품격이라는 공연을 통해 국악과 재즈, 일렉트론댄스뮤직(EDM), 발레 등이 집폭된 이색적인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아쟁과 거문고 연주를 맡은 윤서경과 이재하는 국악의 기악 독주곡인 산조를 바탕으로 아쟁, 대금, 해금, 거문고 연주가 어울리는 짧은 국악 단체 '한놀이' 멤버다. 월드뮤직 그룹 '바이날로그', '거문고팩토리' 등의 단체 활동과 타 장르 음악과의 실험적인 무대 활동도 병행하며 전통을 기반으로 한 국악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공연의 홍일점인 윤지희는 버클리 음대 전액 장학생 출신의 실력과 미모를 갖춘 정상급 연주자다. 작곡가로도 활동하는 그녀는 절제된 감성의 연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재즈 보컬리스트 고아리와 함께 재즈 듀오 '아희'로도 활동 중이다. /정해은 기자



## 임형주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 위촉

팜페라 테너 임형주(29)가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소속사 디자인컴과 에이전시 유니버설뮤직에 따르면, 임형주는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나경원 의원(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임형주는 2013 평창 스페셜올림픽 프레대회 개막식 축하 공연 출연을 시작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의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임형주는 "프레대회 개막식 축하공연 당시 발달장애인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느꼈다"며 "이제 스페셜올림픽의 감동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같이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달장애인 스포츠 단체다. 스포츠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사업, 의료지원을 한다. /정해은 기자



## KTV '국민기자단' 본격 출범

KTV(원장 류현순)의 대표 국민참여 프로젝트인 2016년 국민기자단이 본격 출범했다. 캠퍼스·시니어·주부·글로벌·전문 기자 등 158명이 선발됐다. 과학과 법학 분야의 박사급 이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2월 1~12일 원서를 접수한 2016년 KTV 국민기자단 모집에는 모두 309명이 지원했다. 서류전형과 지역별 면접을 거쳐 158명이 선발됐다.

올해 국민기자단은 캠퍼스기자 99명, 시니어기자 19명, 주부기자 17명, 글로벌기자 13명, 그리고 전문기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과학·법학 전문기자들의 화려한 면면이 눈에 띈다.

과학 분야의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과 체연선 전 항공우주연구원장, 법학 분야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인기 팀장 등 해당분야의 내로라하는 전·현직 전문가 10인이 시청자들에게 친절한면서도 수준 높은 뉴스 리포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화여대 최고령(66세) 졸업생으로 기록된 올해 74세의 박윤자씨가 시니어기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브라질 프로축구 선수 출신인 다닐로 리카르도 다 실바는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한국 스포츠와 문화를 취재하고 싶어 글로벌 기자에 지원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이지영씨, 독일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 현지씨, 중국에 유학중인 도경민·강현수씨 등은 현지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줄 '국민특파원'으로 활약하게 된다.

이들이 제작한 리포트는 국민기자가 직접 만드는 일일 뉴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연출 김현근·진행 최미영)를 통해 방송된다. /정해은 기자

## 군산시, 근대역사경관 보전 위한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군산시가 월명동, 영화동 일원의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해 경관유지 및 관계법령 특례를 적용한 '건축자사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최근 군산시는 근대역사박물관 고우당, 동국사, 신흥동 일본식 가옥 등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의 건축자사를 토대로 전국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면, 관광활성화에 따른 외부 투기자본

의 유입, 상업적인 개발행위 등으로 근대역사경관이 훼손될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오는 3월 건축자사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선도지역 내 건축자사의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군산만의 특색 있는 근대역사경관을 보전함과 동시에 도시 재생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 이주미, 프랑스 무용경연 그랑프리 수상

### 컨템포러리 부문서 '헤일링 소로(Hailing Sorrow)'로 슬픔 표현 돋보여

현대무용수 이주미(23)가 프랑스의 무용경연대회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다.

12~14일 2016 파리 무용 콩쿠르에서 '헤일링 소로(Hailing Sorrow)'로 컨템포러리 부문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헤일링 소로'는 잔근육을 활용해 슬픔을 표현하는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2013년 동아무용콩쿠르 대상 수상작이다.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를 졸업한 이주미는 2012년 제3회 코리아 국제현대무용콩쿠르 그랑프리, 2013년 제43회 동아무용콩쿠르 대상, 2013년 제10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컨템포러리 부문 시니어 여자 1위, 2014년 제1회 뉴욕 발렌티나 코졸로바 무용콩쿠르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파리 무용 콩쿠르는 1971년 파리가 창설한 국제무용콩쿠르다. 신진 무용수들의 새로운 춤을 발굴, 진흥하기 위한 경연대회다. 프랑스 무용진흥협회가 주관하며 클래식 부문과 컨템포러리 부문으로 나뉘 2년마다 열린다.

미국 잭슨 USA 국제발레콩쿠르와 핀란드 헬싱키 국제무용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평가받고 있다. 1998년 당시 국립발레단 김용길(현재중 무용원 실기과 교수)과 김지희(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현대무용수 이주미

이 콩쿠르 발레 듀엣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파리오페라발레단, 보르도국립발레단, 파리오페라발레단의 디렉터와 프랑스무용협회장 등 무용단 디렉터 11명이 심사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전북대 박물관 유물 100여점 기증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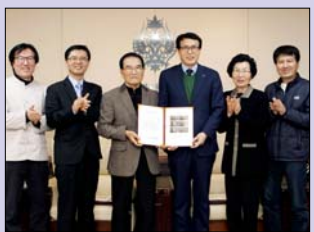
전북대학교 박물관이 올해 처음으로 100여 점의 고서와 고문서를 기증 받았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재에 거주하는 김용태(83)옹이 평생을 간직해오던 고서와 고문서 101점을 최근 맡겨왔다.

이번에 기증된 유물은 19~20세기에 출간된 목판본과 필사본들로, 논어와 맹자 등 유교 관련 고서들과 운서류, 문집류 등이다.

목판본에는 전주는 물론 경성김영·대구 재전당서포·중국 상해 등에서 간행한 것들이 포함 돼 있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박물관은 일정기간 소독을 거친 뒤, 기증 유물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김용태 옹이 고서 등 101점을 기증했다.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tslab.com/

(2016년 2월 25일)

### ▷쥐띠

49년생: 화합이 잘 되고 하늘의 도움이 따르는 운  
60년생: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72년생: 이성으로 인해 구설이 생길 수 있는 운이다.  
84년생: 초반에는 침묵과 괴로운 일이 발생하나 후반에는 상황이 완화되는 운이다.

### ▷용띠

52년생: 매사가 편안하게 풀려난다.  
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신경불안한 일이 생기거나 잘 해결될 것이다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76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는 운이다.  
88년생: 뒷사람과 화합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다.

### ▷원숭이띠

59년생: 자신의 것만 아깝게 생각한다면 고독해질 수 있다.  
69년생: 운서를 잡거나 반목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  
80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이 뛰어나 질 되니 기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이성운이 풀리지는 운

### ▷소띠

49년생: 나사야 샅 상황과 물러사야 샅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하라.  
61년생: 신체적 컨디션이 좋지 못한 운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자주 어긋나니 정신적인 소모가 큰 운이다.  
85년생: 자신이 할 일을 타인에게 맡기지 마라.

### ▷뱀띠

53년생: 남성은 여성과의 의견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운  
65년생: 어려움이 있더라도 손이켜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것.  
77년생: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면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다.  
89년생: 저녁 약속이 빡빡한 것을 일기에 유리하니 저녁을 황혼8시.

### ▷닭띠

57년생: 동기끼리의 화합이 좋은 운이다.  
69년생: 사무되지 말고 청원하 진행한다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1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93년생: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다.

### ▷호랑이띠

50년생: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62년생: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상대에게 오해하여 구설이 따르는 운  
86년생: 어차피 나갈 금전이라면 미리 내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말띠

54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운  
66년생: 금전운이 막혀 있으니 원만한 유통이 되지 않는다.  
78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90년생: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라도 타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 ▷개띠

46년생: 가족의 일에 세심한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무미건조한 운이다.  
70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거리를 두어라  
82년생: 평소 애착이 있던 일이라도 할지라도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이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토끼띠

51년생: 불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빠르게 대처하라.  
63년생: 놀랄 일이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운  
75년생: 식욕은 있으나 무관심에 빠질 수 있는 운  
87년생: 자신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고 타인과의 불화가 생기는 운이니 주의하라.

### ▷양띠

55년생: 아랫사람에게 욕을 베풀어야 뒤떨어진다.  
67년생: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더라도 때로는 할구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는 법이다.  
79년생: 뒷사람과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91년생: 이성과의 의견이 충돌되는 운이다.

### ▷돼지띠

47년생: 동기끼리의 불화가 예상되니 모욕이나 화합을 요하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59년생: 뒷사람과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71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8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많이 따르는 운.